

# 美 “관세 10→15% 인상…다른 나라 더 높아질 수도”

### “트럼프 전세계 15% 언급과 차이”…향후 조정 여부 주목 관세법 338조 특정사항…對中관세 “50% 넘길 의도 없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some)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올리고, 그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관세 유형과 일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위협과는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는 미 동부시간 24일 0시 1분에 발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 서명 하루 만인 21일에는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아울러 그리어 대표가 밝힌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가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가진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인터뷰에서 “단지 이 사건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며 “나는 우리 무역 파트너들이 대체 수단이 우리가 그들과 한 무역협약의 와 어떻게 함께 가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 “이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해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된 공고가 연방관보에 향후 며칠 혹은 몇주 안에 게시될 것”이라며 공개 의견수렴 절차, 청문회, 상대국과의 협의 등 조사 진행 절차를 설명한 뒤 “이후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모든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에게 많은 재량권이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트럼프 대

통령이 더 강력한 관세 부과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강제하는 매커니즘이 필요하며, 잠재적 관세를 위한 301조 조사는 바로 (미국과 무역협약을 맺은) 그 나라들이 협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매커니즘”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 대체수단으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특정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조항은 상거래에서 미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단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그리어 대표는 338조를 발동하려면 “미국이 제3국에 비해 차별받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구체적 사례)이 적용될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301조와 상무부가 조사 권한을 지닌 무역확장법 232조는 우리가 매우 지속 가능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분야”라고 했다.

이와 함께 그리어 대표는 중국에 대해선 “제품에 따라 35~40%에서 50% 사이의 관세를 부과해왔다”며 “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이상 인상할 의도는 없다. 우리는 이전에 한 협의를 정밀 준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올해 미국리 1회 인하” 예상 IMF, PCE 물가 내년 2.0%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가 한 차례 인하될 것으로 25일(현지시간) 예상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미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이 2.4%, 금리는 연말에 3.25~3.50%가 될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와 동일하다. 지난해 미국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다.

금리는 현재 3.50~3.75%로, IMF는 연준이 올해 안에 이를 한 차례 0.25%p 내릴 것으로 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큰 폭의 금리 인하’와는 거리가 있다.

금리 결정의 주요 지표인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여파로 올해 초 0.5%p 상승효과를 얻겠지만, 점차 그 영향이 줄면서 내년 초에는 연준이 목표로 삼는 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IMF는 내다봤다.

IMF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전망에 대한 리스크는 균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관세와 이민단속에 대해서도 미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